

축산경쟁력향상 방안 - 사료비 절감을 통하여



김 유 용
서울대학교 교수

1. 서론

우리나라가 미국과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미 FTA의 가장 큰 피해자가 축산분야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그 예상들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게다가 한-미 FTA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한-EU FTA를 추진하면서 축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미-FTA에 의해 한우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된다면, 한-EU FTA의 체결시 가장 큰 피해자는 양돈분야가 된다는 것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미국의 경우는 한우쇠고기와 비슷한 품질의 쇠고기를 생산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며, EU의 여러 나라들은 오랫동안 양돈산업에서의 생산성향상과 생산비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이제는 돈육의 품질 및 경쟁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들이 되었다. 따라서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축산은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나라들과 본격적인 경쟁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최근들어 국제 곡물가격이 급격히 한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축산분야에서도 늦게나마 생산비와 생산성에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어 늦었지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2. 본 론

가. 국제곡물시세

사료비가 총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종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약 50%내외를 차지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생산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옥수수의 가격이 2006년 여름 130\$/톤에서 현재는 230\$/톤으로 가격이 폭등한 상태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에탄올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옥수수의 양이 전체 옥수수생산량의 20%를 상회하면서 옥수수가격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두박의 가격도 미국 농가들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것이 대두를 재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므로 대두 경작면적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동반상승하고 있다. 또한 2006년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지역적인 가뭄과 폭우로 밀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호주까지 밀을 수입하는 상황이 되면서 2006년말에는 전 세계의 밀재고량이 약 40%나 줄어 밀의 국제시세가 인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같은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사료용 곡물을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축산물가격과 관계없이 사료비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료를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내 축산업의 현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수입한 옥

수수, 대두박을 주 원료사료로 우지를 많이 섞는 이른바 “노랗고 찹찹한 사료”의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사료회사들마다 배합사료의 색깔이 더 노랗다는 것을 사양가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옥수수를 미국산만 사용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영양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옥수수의 색깔이 노랗다는 것이 옥수수의 영양학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므로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사료의 색깔보다는 전체적인 영양소함량 및 이용효율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료는 찹찹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많은 사료회사들이 양축가들에게 경쟁적으로 인식을 심어놓아서 이제는 배합사료를 손으로 잡았을 때 손에 기름이 묻어나지 않으면 저질사료라는 매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료회사들이 양축가들에게 “사료는 노랗고 찹찹해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놓은 결과가 옥수수 이외의 다양한 원료의 선택을 어렵게 하였고 가격이 상승한 우지를 높은 비율로 첨가해야 하는 부담이 되어 배합사료의 제조원가를 쉽게 낮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는 국내외의 축산산업의 현황이 급격히 변화되어 사료산업에서도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 축산물의 가격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축산물들과 경쟁을 하여야 하므로 생산비가 높아져도 쉽게 인상할 수 없는 산업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축산물 생산비중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내외가 되는 현실에서 양축가들이 생산비를 가장 쉽게 낮

출수 있는 방법이 사료비의 절감이란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지금처럼 사료비가 계속 상승한다면 양축농가들의 생산비는 상승되지만, 축산물가격은 함께 상승되지 못하기 때문에 양축농가들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다. 양축농가들이 사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부실화가 심화되면 양축농가들에게 여신을 주고 사료를 공급하고 있는 많은 사료회사들의 부실화는 자명한 결과가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사료회사들이 대부분의 양축농가들에게 여신으로 사료를 공급할 때 담보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금융권 다음으로 후담보를 설정하고 있어서 양축농가들의 부실화가 현실로 나타나면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실화된 양축농가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게 되어 사료의 소비자에 해당하는 양축농가가 사라진다면 사료회사들의 존립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위기상황에서 축산분야의 모든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한 양축농가들의 존립기반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나라 사료산업 및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다. 양축가들의 사료비 절감방안

우리나라 많은 양축가들은 지금까지 생산비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축산일에 중시를 해 왔다고 과언이 아니다. 축산물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생산비에 비해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세하게 판단하지 않고, 사료비를 비롯한 일부 항목은 생산비절감 대상의 항목으로 아예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축농가들은 우

선 동물들의 사육단계별 사료급여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연구결과가 증명하듯이 동물들의 성장단계별로 사료회사에서는 배합 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신뢰를 가지고 성장 단계에 맞는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축산물 생산비를 줄이는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유자돈사료는 이유자돈에게, 육성돈사료는 육성돈에게, 비육돈에게는 비육돈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데 아직도 이유자돈사료나 육성돈사료를 비육돈에게 급여하는 악습이 일부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생산비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사람에게 적용하면 대학생이 된 아들에게 영양소함량이 높다고 아기가 먹는 이유식을 먹인다고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 다음이 아직도 농장에서 사료의 허실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축산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사료의 허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비 인상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료허실은 농장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30%로 매우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생산비의 직접적인 절감효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내 축산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다. 현재 외국과 직접 생산성이 비교될 수 있는 양돈분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약 60~70%에 불과한 생산성이 빠른 시간내에 높아지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된다. 축산경쟁국에 비해 생산비도 높고, 생산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비를 낮추는

방안과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라. 사료회사의 사료비 절감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료회사들은 옥수수-대두박을 위주로하는 배합사료를 생산해 왔으며, 다양한 박류를 함께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곡물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사료 생산비가 높아지지만, 국내 축산의 현실에서 사료비를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사용해왔던 옥수수대신에 다른 대체원료의 사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본인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열대지방의 박류는 옥수수를 대체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원료사료라고 확신한다. 문제는 열대지방에서 생산되는 박류들이 짙은 색깔을 띠어서 배합사료를 생산하면 기존의 노란색 대신에 색깔이 어두운 사료가 생산될 수 밖에 없다. 열대박류를 옥수수대신에 첨가하여도 동물의 성장능력이나 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료회사들이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많은 양축농가들이 노란색의 사료가 좋은 사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료회사들은 옥수수대신에 다양한 원료사료를 사용하면서도 동물의 성장능력은 저하되지 않는 사료를 제조하여 국제 옥수수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료비인상을 가급적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3. 결론

이전에는 국가간의 축산물거래가 관세라는 장벽에 의해 보호되기도 하고 애국심에 호소하여 국산제품의 소비를 높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적인 환경은 국가간 자유무역(FTA)을 통하여 더욱 활발한 무역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성되고 있으므로 축산선진국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생산비는 낮추고, 생산성은 최대한 높여서 어떤 조건에서도 국내산 축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생산비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료비이므로 생산비를 언급할 때 사료비가 언급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사료비뿐만 아니라 생산비항목에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들을 총체적으로 절약하여 줄이는 방법이 축산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